

시설공단 임직원, ‘사랑의 연탄나눔’ 자원봉사

2016-12-12 오후 4:56:00

마포타임즈 ☒ mapodesk@hanmail.net



연탄을 나르고 있는 김영식 이사장(오른쪽)
(제공=마포구시설관리공단)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이하 공단) 김영식 이사장 등 임직원 37명은 12월 2일 아현동에서 ‘사랑의 연탄나눔’ 자원봉사 활동을 펼쳤다.

이번 사랑의 연타나눔 자원봉사는 직원들의 사랑의 끝전모음으로 연탄 1,200장을 구매, 아현동 저소득층 3가구에 연탄 700장 직접 배달 및 (사)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 운동에 500장을 기증(후원)하였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김영식 이사장은 “관내 어려운 이웃들이 추운 겨울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연타나눔 행사에 직원 급여 끝전모음 후원 및 동참해 준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임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는 말과, 앞으로도 나눔 문화에 동참하여 고객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전직원 '마포 희망나누미 봉사단'을 결성하여 매년 자체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함께하는 나눔 문화 확산 및 공공기관 사회공헌 활동에 동참해오고 있다고 전했다.

0공유

<저작권자©마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6-12-12 16:56 송고

<http://www.mapotimes.co.kr/news.aspx/364973>